



연재 3 회

안경 이야기

李 相 旭

눈의 굴절상태(屈折狀態)는 나이와 더불어 변하고 있다. 갓난 아기의 눈은 대체로 원시이지만 유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면 차차 근시가 증가해서 20세 즈음이면 굴절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아동의 통계를 보더라도 1학년에는 원시가 근시보다 많지만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차차 원시는 줄어 들고 대신 근시는 증가한다.

원시란 아무 조절을 안하는 상태 즉 먼곳을 보고 있을때 눈앞에서 들어오는 평행광선이 눈의 망막(網膜) 뒷쪽에 초점을 맺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이름 그대로 먼곳의 물체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는 눈을 말한다. 그러나 중등도(中等度)이하의 가벼운 원시에서는 눈이 조절을 해서 이러한 굴절 이상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먼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잘 보이고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되면 먼곳을 보는 때는 지장이 없지

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조절이 과도하게 되므로 눈이 안쪽으로 물리는 사팔눈이 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조절을 과도하게 하므로 안정 피로(眼精疲勞)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책을 보면 눈물이 핑 돌고 앞머리와 눈이 아프고 쉬 피로하며 심할 때는 메시겁고 토하기도 한다.

고도원시(高度遠視) 때는 여러가지 선천적인 병이 함께 온다. 아주 심한 원시는 유전으로 온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우리는 안경이란 시력이 나쁠때만 쓰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

視力이 좋다고 눈 좋은 것은 아니다. 사팔눈은

그래서 먼곳이나 가까운 물체가 안 보일때만 비로소 안경을 찾게된다. 그러나 원시가 심하지 않을때는 먼곳이나 가까운 곳을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원시를 눈자체가 교정하느라고 과도하게 조절을 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가져온다. 이때는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력이 1.5 이상이다 할지라도 원시안경 즉 볼록렌즈를 끼워줘야 한다. 그래야 눈의 피로와 두통을 공부할 때 호소하는 사람에게 원시가 있을 때는 맞는 안경을 써줘주는 것만이 치료법이다. 흔히 안과에서 우리아이는 시력이 좋은데 안경을 쓰라니 웬일이나고 불평을 말하는 부모가 있고 또 안경을 만든 다음에도 잘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안경이란 시력만 잘 보이게 할때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만 보인다고 함부로 아무 안경이나 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또 눈의 상태를 잘 검사해서 안경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 어린아이에서 중등도 이상의 원시가 있으면 눈이 안쪽으로 물리는 사팔, 즉 내사시(內斜視)가 되는 수가 있다. 이때도 사팔눈은 곧 수술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을 받아서는 안된다. 원시 때

문에 온것은 눈에 정확하게 맞는 원시안경을 써줘주면 돌아간 눈이 수술 안받고도 바로 잡아지는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시력이 좋아도 꼭 안경을 써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력만 제서 좋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눈이 쉬 피로하고 머리카나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 특히 어린이는 안과에 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또 무시위하고 있으나 원시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고 또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자=가톨릭醫大 聖母病院 안과과장>

•우수개.

유도신문

택수염이 더부룩한 사나이를 경찰이 심문하고 있다. 그는 강간혐의로 잡혀 왔다.

「이 여자 알지?」

「물라요」

「이 여자는?」

「물라요」

「자 그럼 이 사진의 여자는?」

「모르겠는데요」

「바른대로 말해. 그래야 처벌도 가벼워져」

「형사님이 보여주는 사진은 모두 딴사람만 보여 주시는걸요.」

내버려둬서 생기고, 안경으로 교정할수 있다